

《천년의 향기 한시 산책》 《꽃에게 길을 묻다》

식물성에 기댄 두 개의 프리즘

글_ 임동헌



《꽃에게 길을 묻다》
조용호 지음 | 생각의나무
값 12,000원



《천년의 향기 한시 산책》
기태완 지음 | 섬앤섬
값 10,000원

내 앞에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다. 한 권은 한문학자 기태완의 《천년의 향기 한시산책》(섬앤섬)이고, 한 권은 소설가이자 신문기자인 조용호의 《꽃에게 길을 묻다》(생각의 나무)이다.

두 권의 책은 식물성을 인문학적 깊이로 끌어들이 인간의 삶을 반성케 하고, 이 땅의 식물들이 인간에게 어떤 반성 기제를 제공하는가를 저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같은 궤를 달린다. 반면에 두 권의 책은 식물들의 삶이 옛 선비들에게는 어떤 사유를 낳게 했으며 《천년의 향기 한시산책》,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기를 통해 길 잃은 사람들의 방향타를 제공하는가 《꽃에게 길을 묻다》를 저작한다는 점에서 다른 궤를 달린다.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절기에 비슷한 소재로써 독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확연한 공통점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두 권의 책은 개성 있고, 향기롭다.

그렇다면 《천년의 향기 한시산책》은 우리에게 어떤 향기를 전하는가. 기태완은 갈대, 진달래, 나비, 국화, 동백의 향기에 기대 세상의 질서와 무질서를 노래한 중국과 한국 선비들의 한시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한시에 덧붙여진 기태완의 사유가 한시의 격을 한층 높이는데, 그 일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봄에는 여자가 그리움에 사무치고(春女思), 가을이면 남자가 슬픔에 잠긴다(秋男悲)고 하였던가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무심히 시 한편을 읽습니다. 이상은의 시 <금슬(錦瑟)입니다’

당시(唐詩) 가운데서 천여 년 동안 주석가들의 해석을 분분하게 했던 이상은의 시를 꺼내들기 위한 모두인데, 그 모든 주석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날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일 뿐’이라며 기태완 자신이 긴 여름을 덧없이 보내버렸다는 자탄의 심사를 꺼내놓는다. 이런 접근은 이전의 한학자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현학의 변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니 《천년의 향기 한시산책》에 소개된 한시들은 기태완의 주석을 만나 한층 만개한 꽃들 같다는 느낌이다. 더욱 뜻 깊은 것은 이 책을 낳은 산파가 2003년 복간된 《출판저널》의 연재물이었다는 사실이다. 연재 당시에도 현대와 과거를 튼실하게 접목한 독특한 아우라로 높게 평가됐던 점을 생각하니 《천년의 향기 한시산책》에 독자들의 관심이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가에게〉 〈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사를 거쳐 〈출판저널〉 주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쏟아지기를 빌게 된다. 되짚어 보니, 이 세상에는 한시 한수의 발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횡행하는가. 또한, 한 점 꽃 앞에서 세상 이치를 깨달은 선비들의 발목에도 못 미치는 지식과 관념으로 세상 이치를 깨달은 듯 목청 높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횡행하는가. 그러니 《천년의 향기 한시산책》은 ‘천 년’의 시간을 오늘에도 향유할 수 있도록 압축한 콘텐츠임이 분명하다.

조용호의 《꽃에게 길을 묻다》 역시 《천년의 향기 한시산책》에 못지않은 아우라를 획득한 저작이다. 대체로 여행길을 안내하는 책들은 길잡이 역할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조용호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경남 하동의 평사리에서 찍은 자운영 사진에는 나태주 시인의 작품 《자운영 꽃》이 잇대어져 있는데, 이러한 장치는 문학과 땅이 동일체임을 깨닫게 하는 인문학적 깊이를 확인시켜 준다. 시와 소설은 낭만의 소산이라는 일반인들의 관념을 뒤흔들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통해서 지난한 삶의 방향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지에 다다른 것은 아마도, 이 책의 저자 조용호가 쉐러리맨으로서의 신문기자가 아니라 소설가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나는 다시 두 권의 책을 읽다가 무연히 책 속의 꽃과 나비, 갈대와 나무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꽃들도 말을 한다는 것이고, 두 저자 역시 꽃들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이다. 그 단서는 이런 데 있다.

기태완은 ‘인생은 기러기 발자국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동파거사 소식(蘇軾)의 《자유의 시에 화답하다》라는 시를 소개한 대목에서인데, 이 시는 소식이 동생 소철에게서 받은 편지에 답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형제끼리의 안부 편지와는 차원이 다른 격조를 획득한 작품이다.

‘사람이 나서 가는 곳마다 무덤과 같은지 아는가

날아가던 기러기가 눈 녹은 진창을 밟는 것과 같으리라’

(중략)

위의 시는 1057년 과거에 급제한 소식이 부임지에 도착해 노승 봉한의 승방을 찾은 후에 쓴 것이다. 그때 노승을 만났다면 위의 시는 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소식이 노승 봉한의 승방을 찾으니 노승은 세상을 뜬 뒤였고, 소식이 공부했던 방 역시 폐허가 돼 있었다. 그러니 벼슬길에 나선 사람의 심사가 오죽했을 것인가. 기태완은 이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기운의 그림 《노안도(蘆雁圖)》를 소개하고 있다. 갈대밭의 기러기를 그린 이 작품은 ‘날아가던 기러기가 눈 녹은 진창을 밟는 것과 같으리라’는 소식의 시에 덧붙여져 ‘한시 산책’의 진미를 느끼게 해준다. 뿐인가. 그 어려운 한시를 앞세워 이라크 전쟁과 두보의 시를 나란히 놓은 지점에 이르면 새삼 글의 경지가 얼마나 넓은가 헤아리게 되는데, 결론은 이라크 전쟁의 야만성과 두보의 시에 드러나 전쟁의 야만성이 서로 닮았다는 점이다.

기태완이 한시 세계를 식물성과 인생에 견주었다면 조용호는 곧잘 사랑을 말한다. 꽃에 기댄 문학기행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의 글들 중에는 백일 동안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는 배롱나무 꽃 이야기가 특히 눈길을 끈다. 백일 동안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는 배롱나무 꽃에서 그는 ‘사랑의 유효 기간도 짧다’는 잠언을 건져낸다. 그렇다고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정(情)으로 자리한단다. 그러면서 덧붙인 시가 도종환의 시 《목백일홍》이다.

‘피어서 열흘 아름다운 꽃이 없고/살면서 끝없이 사랑 받는 사람 없다고/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중략)/한꽃이 백일을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게 아니다/꽃은 저도 나무는 여전히 꽃으로 아름다운 것이다/제 안에 소리 없이 꽃잎 시들어가는 걸 알면서/온몸 다해 다시 꽃을 피워 내며/아무도 모르게 거듭나고 거듭나는 것이다’

꽃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실상은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시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작가 조용호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쯤 되니 두 사람의 저작은 식물성의 이미지만 불러왔을 뿐 실제로는 사람살이와 더불어 견고하지 못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가너린 식물보다 못한 사람들의 행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조용호는 ‘시인들은 꽃에 빗을 졌고, 나는 다시 시인들에게 빗을 졌다’고 고백하고, 기태완은 ‘비에 젖은 접시꽃을 보면 신선이 되어서까지 모욕을 당한 최치원의 불우한 생애가 떠올라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다. 기태완은 ‘산책’이라 하고, 조용호는 ‘길을 묻는다’고 하지만 필자가 볼 때 두 저자는 저위에서 사람들의 행보를 내려다보고 있다. 동물성이 횡행하는 세상이니 식물성의 모티프가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해 주고 싶었을 것인데 눈 밝은 사람들에게는 이 두 권의 책이 꽤 향기로울 터이다. ☞